

● ● 문화현상읽기 대중문화

몇몇 ‘앵글로-저패노필 *anglo-japanophil*’ 인디 음반을 들은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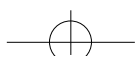
신 현 준 | 대중음악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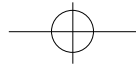
오늘소개하는음반들은대중음악이라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음악’에 속한다. 나름대로 대중적으로 만들었는데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 때부터 ‘이런 음악은 별로 인기 없을 거야’ 하고 만든 음반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을이후나온 이음반들의 주인공과 제목을 열거하면 넬 *Nell*의 <Speechless>, 라비앙로즈 *La Vie en Rose*의 <La Vie En Rose>, 전자양 *Dencihinji*의 <Day Is Far Too Long>이다. 대부분 ‘신인’이라서 생소한 이름인데다가 밴드 이름은 물론 앨범 타이틀까지 모두 외국어로 되어있어서 음반점점원이 ‘가요 가아니라’ ‘팝’ 쪽에 진열해놓을지도 모르겠다.

내향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인디록’

이들의 음악은 ‘인디록’이나 ‘모던록’으로 통칭할 수 있다. 물론 매스컴의 한때의 호들갑으로 인해 인디 음악을 ‘머리를 울긋불긋 물들인 젊은 애들의 막나가는 음악’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음악은 그런 인디 음악과는 거리가 있다. 음악이 대체적으로 내향

적이고, 차분하고, 우울하기 때문이다.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록 음악’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칠고 빠르고 시끄럽다’ 하는 록 음악의 스테레오 타입과 또 다르다. 이런 음악들은 일반적 지면에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우선 밴드 이름부터가 ‘이국적’이다. 물론 이때의 ‘이국’이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지역 같은 정말 낯선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 특히 먹물을 좀 먹은 사람이라면 늘 잠재의식적으로 동경하는 런던, 파리, 도쿄(東京) 같은 ‘글로벌 센터’들을 말한다. 넬 *Nell*이라는 이름은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라비앙로즈 *La Vie en Rose*는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유명한 샹송 제목이다. 전자양





대중적이지않은 대중음악에 속하는 ‘인디록’ 혹은 ‘모던 록’은 대체적으로 내향적이고, 차분하고, 우울하기때문이다. 전기기타, 베이스기타, 드럼을기본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 록음악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칠고 빠르고 시끄럽다’라는 록 음악의 스테레오 타입과도 다르다.

*Denshinji*는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어 알파벳으로 쓰여있는 ‘덴끼힌지’가 전자양의 일본식 발음이라서, 또영화<블레이드러너 *Blade Runner*>의원작인SF 소설「안드로이드는전기양의꿈을꾸는가?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저자필립케이 딕 Philip K Dick)에서 차용했을 지도 모른다는 상상이발동하는이름이다.

어디서 좇아들은 이야기지만, ‘라 비 앙 로즈’라는 이름은오타쿠를대상으로했던애니메이션<디지캐럿>에 등장하는 ‘주사위소녀’ 우사다 히카루의 예명이기도하고, 또다른애니메이션 <기동전사건담>에 등장하는 스페이스 콜로니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의 음악도 ‘글로벌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무슨말이나하면이들음악에대한평은국내가요만 듣는사람도, 흘러간팝송만듣는사람이라도, 클래식과재즈만듣는사람이라도하기힘들다는이야기다.

밴드이름음악모두 ‘글로벌한감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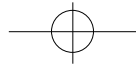
반면 1990년대이후 미국, 영국, 일본등지에서자리를 굳힌 ‘인디 록’ 혹은 ‘모던 록’을들은 사람이라면이들에대한평은간단하다. 예를들어서넬의음악은 라디오헤드 *Radiohead*와 뮤즈 *Muse*를, 라비앙로즈의 음악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My Bloody Valentine*과슬로우다이브 *Slowdive*를, 전자양의음악

은피쉬만스 *Fishman*와 벨 앤 세바스찬 *Belle & Sebastian*등을언급하는것으로출발하면매우편리하다는말이다. 예를들어다음과같은리뷰를읽어보자.

“모두 15트랙이수록된이앨범은노이즈와멜로디의 미묘한 관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부각되는 곡들과, 명료한사운드로상대적으로밝은느낌을주는곡들, 그리고필터를거치지않은거친질감의노이즈와 잡음이 ‘그대로 녹음된 (아, 홈레코딩!) 곡들로 나눌 수있다. 첫번째영역에포함되는곡들(1, 3, 5, 9, 14번)이규칙/불규칙적으로반복되는전자음과e-보우의 사용을 통해 서정적(lyric)인 감수성과 공간감(ambient)을 표현한다면 두번째 영역에 포함되는 곡들(2, 7, 11, 13번)은명료한기타사운드를통해친근한멜로디를들려준다. 상대적으로사운드효과가 ‘제한되어거친 (아, 로파이!) 세번째구성에포함되는곡들(4, 6, 8, 10, 12, 15번)에대해서는벨앤세바스찬 *Belle & Sebastian*과닮았다고 할사람도있을 것 같다. 물론 기타 팝, 슈게이징, 포크의 감수성이 뒤범벅된 이러한구성은 자칫 산만해질수도 있지만전자양은어쿠스틱/전기기타중심의이앨범에서나름의규칙을세운다. 분위기가상이한곡들이서로변갈아진행되는 형식은 ‘노이즈와 멜로디가 뒤섞인 소리들을 지루하게도, 낯설게도하지않는다”

(차우진, ‘전자양<Day Is Far Too Long> 리뷰: 멜





● ● 문화현상읽기 대중문화

로디와노이즈의모호하지만행복한결합)

아마도이글을읽는사람은두가지부류로나뉘는 것이다. 하나는관심있게읽어보는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사람일 것이다. ‘노이즈’, ‘로파이’, ‘슈게이징’, ‘앰비언트’, ‘홈 레코딩’, ‘e-보우’ 등의 용어들은 전자의 부류에게는 ‘상식 예측하겠지만, 후자의부류에게는무슨컴퓨터 하드웨어의메뉴얼에나올법한전문용어정도로들릴것이다. ‘기타팝’이라는알듯말듯한용어만해도 기타라고표현된단어가기타(guitar)인지기타(其他)인지 혼동스러울것이며, ‘guitar pop’이라고 말해줘도 “기타를사용하지않는팝음악이어디있느냐” 하는식의 질문을 연발로 날리게 될 것이다. ‘포크’라는 용어도 “통기타를 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이라고만 이해하고있다면, 이런소박한음악이 ‘멜로디와노이즈의결합’ 과연떻게연관되는지도저히감을잡지못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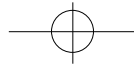
스스로주류세계와소통차단한 ‘모던록’

저글을쓴사람의의도는아니였겠지만, 음반에 담긴 음악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담론마저도 주류 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대중적인대중음악 의불변의특징이’ 신나고재미있고 흥분되는 ‘것’이라면 이들의음악은 그와는정반대이고, 그점은이런스타일의음악을즐거듣는사람들의일반적성향일것이다. 물론세밴드의음악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 넬의 음악은 자학과 자기연민이 강한 가사, 서정적 멜로디를 수반한 악곡형식을 부각

시키고 있으며, 라비앙로즈는 여성 보컬의 멍멍하고 귀여운목소리와더불어시끄러우면서도나른한사운드를가지고있으며, 전자양은숫기없는소년의웅얼거림을어쿠스틱악기의음과전자효과음이뒤섞인사운드가장식하고있다.

그렇지만이런차이점도정작이들의 ‘정서공동체’ 외부에있다면그다지부각되는특징으로다가오지않을 것이다(참고로 공동체와 소통이라는 두 단어는 영어로는같은어원을갖는다. community와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필’이 올 것이다). 물론이 공동체 내부에서는이들에 대한토론이치열하다. 그계단지의국유명밴드의음악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인지, 영향은 흡수하되 독자적 세계를표현한것인지에관한토론말이다. 또한이들이처음은아니므로이제는선배밴드가되어버린 ‘인디1세대’에서만들어진음악들과의비교도가끔등장한다. 그렇지만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자라면 어쩌다가 이들의음악이라디오에서흘러나오더라도금세다른채널로돌려버릴지모른다. 하지만다행히(?) 그럴일은 별로없을것같다. 확언할수는없지만음반들의판매고도 많아봤자 1천장을 넘지는 못할 것 같으니 말이다. 이런상황에서는라디오헤드 Radiohead가너바나





‘대중적인 대중음악 의 불변의 특징이 ‘신나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이라면 이들의 음악은 그와는 정반대이고, 그 점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일 것이다. 이들의 ‘정서 공동체’ 외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음악은 ‘댄스가수들에 비한다면야 그래도’ 음악다운 음악 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하다.

Nirvana 이후 영미의 평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밴드라든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My Bloody Valentine*의 <Loveless>(1991)라는 앨범이 20세기의 명반을 꼽을 때 최소한 5위 안에는 너끈히 랭크되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단지 ‘외지의 견해 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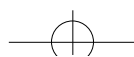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음반의 주인공들이나 인용한 리뷰를 쓴 평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메타평론을 하는 척하고 있는 이 글의 필자는 한국인의 음악 취향의 글로벌 감각의 부재를 탓하고 있는 셈인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막말로 TV에 나와서 ‘작곡가가 만들어준 곡을, 코디가 입혀준 옷을 입고 립싱크하는 댄스가수들의 음악에 비한다면야 그래도’ 음악다운 음악 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음악들이 과연 ‘한국에서 살아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말이 좀 꼬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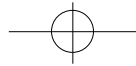
상상속 서양화된 일본풍의 음악 세계

앞에서 이미 운을 띄워놓은 셈이지만, 나같이 ‘늙은’ 평론가의 눈에 오늘 소개하는 음악의 주인공들은 ‘일본애들처럼’ 보인다. 이 말에 대해 공연한 ‘반일감정’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 게다가 ‘일본애들’이라는 말로 현재 일본의 복잡무변한 문화를 싸잡아 규

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이란 실제의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상상하는 일본이다. 즉, 일본 문화를 어떻게 생각(혹은 상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야의 초점은 도쿄, 그것도 하라주꾸(原宿)나 시부야(涉谷)로 상징되는 문화적 첨단지의 장소에 맞추게 된다.

하라주꾸나 시부야를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곳의 마치 ‘서양같은’ 곳이다. ‘서양적’이라는 말은 ‘첨단적’이라는 뜻이 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양화된 일본’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 주로 일본의 젊은이들은 국적 불명으로 보이고 그 점을 자연스러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왜색’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혹 느낄 수 있는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과 상냥함을 왜색이라고 우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곳에 있는 대형 음반 매장에 들어가 보면 방대한 규모와 잘 정비된 분류 등 이런 것들과 뉴욕을 능가한다. 실제로 일본 시장은 대중음악의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영미권 출신 음악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앞서 언급한 라디오헤드의 경우도 일본의 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바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일본의 음악 팬들은 한국의 음악 팬들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피상적 생각이 들게 된다. 듣고 싶은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한국에 비





● ● 문화현상읽기 대중문화

하면 그곳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의 천국처럼 보였다. 단지, 음악소비자만 그런것은 아니다. 음악생산자의 경우도 잘 정비된 클럽 시스템에서 연주하면서 대중의 반응을 점검하면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다못해 길가에서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류를 들고 가서 신고해야 될까?)

그런데 도쿄에 관한 또 하나의 인상이 있다. 그것은 그곳이 매우 번잡스러우면서도 실제로는 고독한 도시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과 매우 닮아있으면서도 (사실은 서울이 동경을 닮아간 것이겠지) 속은 또 달랐다. 간단히 말해서 도쿄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하게 술 먹고 노는 문화가 없어 보였다. 빠짱고 나가라 오케 그리고 각종 '쇼'를 하는 업소는 많았어도 그것들 대부분은 '혼자 즐기는' 문화였다. 그게 일본도 모더니티의 황혼을 겪는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제 일본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일 없이 심심하고 지루한' 단계에 접어들은 모양이다. 일본에 만들어진 인디 음악이나 일본에서 잘 팔리는 영미의 인디 음악들 가운데 심심하고 지루한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음악이 많은 것이 그 반증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의 인디 음악인들 중에는 영미 음악인들과 '정서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인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적 교환(cultural exchange)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는 사람은 아는 (= 모르는 사람은 모

르는) 이야기다.

오늘 소개한 '국산' 음악들이 이런 음악들과 같은 과(科)에 속한다는 말을 하느라고 너무 빙빙 돌아왔다. 실제로 한국에서 인디 음악이나 모던 록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본산(産) 음악은 영미산(産) 음악과 함께 듣는 '음악'이 된 지 오래다. 오늘 소개한 음반들이 시장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일본산 음악의 영향을 받은 국산 음악이 생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처럼 아직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음악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음악은 '일본처럼 선진적이고 첨단적이고 싶어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지향의 발로' 정도로, 즉,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는 별 관련이 없는 음악으로 들린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도 든다. 그건 '이제 한국도 조만간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첨단적이고 자하는 이들의 미학적 지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재고해 보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의 미래를 토론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다. 혹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결국 '일본을 통해 과된 영미 문화를 따라하는 애들 아니냐'는 정도가 지배적 반응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